



캠코 광주전남본부, 아동 '교육 봉사활동'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함께할 새누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임직원들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 G-JUMP 소속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높였다. 캠코 임직원들과 G-JUMP 대학생들은 과학실험과 블록조립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학 교육을 실시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한층 더 풍부한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임직원과 합동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차상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아동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등 추가적인 봉사활동도 준비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 활동으로 작게나마 힘이 돼주고 싶다"고 밝혔다. **나다운기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합동 친절도 점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5일 광주 3개구 시설관리공단(북구·서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친절도 교차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차점검은 3개 기관(북구·서구·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시설물 교차 안전점검, 외부감사지원에 이어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각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해 공단 전반의 친절도와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친절도 교차점검 대상 시설로는 북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우산수영장을 포함, 서구의 상무국민체육센터, 풍암국민체육센터, 광산구의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를 선정했다. 점검방식은 공단 직원이 방문 고객을 가장한 비밀 점검식으로 진행됐다.

3개 공단은 점검결과를 사업 부서에 전달해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부소방, 추석 맞이 공직자 봉사활동

광주 북부소방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만들기 위해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활동을 위해 엠마우스 복지관을 방문한 직원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추

석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등 유사시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또 복지관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위문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북부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광산소방,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8월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화재진압대원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의 전문적인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평가 종목은 화재진압 4인조법으로 관창수 1명, 관창보조 2명, 운전원 1명이 팀을 이뤄 실시하며 화재진압과 사다리 전개, 로프 매듭 등 재난 현장에 필요한 화재진압 전술능력을 평가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동 자율방범대, 마약 근절 앞장

광주 서구는 지난 4일 풍암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등 자율방범대, 마약류 명예지도원과 함께 찾아가는 마약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동아리 사건과 술집 등에서 발생한 마약투약 범죄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서구는 현장에서 업주들을 직접 만나며 일상 속 상호, 상품, 메뉴에 쉽게 쓰이는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마약범죄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서구는 풍암동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치평동, 상무1동, 금호1동 등 관내 주요 먹자골목을 방문해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정주리 "다섯째도 아들... 냉혈한 남편도 눈물"

다섯째를 임신한 방송인 정주리가 근황을 전했다. (사진)

지난 4일 정주리 유튜브 채널에는 '미혼, 딩크 아가씨들과 근황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정주리는 주말을 맞아 시누이들과 함께 외출에 나섰다.

정주리는 "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이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남편이랑 창고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저는 아가씨들과 감성카페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 한번 해보자"고 말문을 열었다.

영상에서 정주리는 "배가 많이 나왔다. 내년 1월에 다섯째가 나온다. 지난 주에 병원을 갔다 왔다. 그 사이에 성별이 바뀌었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보이시죠 XX'라고 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정주리는 "우리 다섯째 아이가 이제 21주가 됐고, 내 몸무게는 지금 83kg다. 애기 몸무게는 400g"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어제 남편이랑 나랑 둘이 아이 성별 확인했을 때 둘이 너무 웃었다. (남편이) 차에서 눈물이 조금 났대. 그 냉혈한이. 딸을 낳아줄까 그 생각도 했다"며 웃었다.



정주리는 "임신하니까 '얼굴이 더 평온해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아기 임신했을 때가 제일 건강할 때인 거 같긴 하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술도 이제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컨디션도 제일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애 낳고 1월 지나면 또 찌들겠지 잠 못 자고"라며 웃었다.

지난 2005년 SBS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정주리는 1세 연하의 직장인과 2015년 결혼했다. 2015년 첫째 아들, 2017년 둘째 아들, 2019년 셋째 아들, 2022년 넷째 아들을 낳은 바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시의회, '반부패 청렴 교육' 진행

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이광표 청렴 전문가를 초빙, 법령 및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등이다.

또 전 의원은 청렴 서약식과 청렴우체통 투합식을 진행,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해당 서약서는 청렴우체통에 담아 1년 후 자신에게 전달되며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산경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광산경찰은 5일 오전 광산구 우산동 소재 어등초등학교 정문 등 통학로에서 교통경찰관, 녹색어머니회, 광산구, 학교 관계자 등 합동으로 등굣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횡단보도 이용 등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포돌이·포순이 캐릭터 연필·볼펜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도 함께 배부했다.

이관형 광산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단체와 협업해 합동 캠페인 등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서경석 "공인중개사 합격 2년 걸려... 너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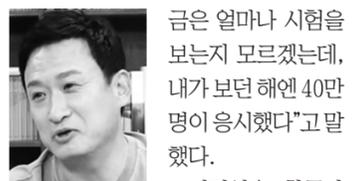
개그맨 서경석(사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유에 대해 말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르르르 이경규'에는 '서경석, 코미디언, 공인중개사 등 직업 부자 이번에 도전할 종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서경석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된 이유를 "오래 홍보를 맡았던 회사 주 종목이 그거(공인중개사 시험)였다"며 "도대체 얼마나 시험이 힘들길래 합격하면 영광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슬퍼할까 생각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안 불더라도 공부해 해보자 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웠다. 6과목 중 5과목이 법인데, 하다가 눈물이 났다. 2년에 걸쳐서 정말 어렵게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서경석은 32기 공인중개사라며 "지



금은 얼마나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던 해엔 40만 명이 응시했다"고 말했다.

서경석은 한국사 자격증과 한국어 능력 자격증에도 도전했다고 했다. 이경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어릴 때 공부를 정말 싫어했다. 그런데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했다.

서경석은 "5학년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졌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대안역 앞에서 신문도 팔아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험이라도 잘 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